



2

라파엘이  
만난 사람

숙대 약대 개국동문 이미선 약사

4

라파엘  
클리닉

인도인 S씨 수술지원  
국제로타리3640지구 8개 클럽(남서울로타리 외 7곳) 코로나19 방역물품 후원  
환자지원소식

6

라파엘  
인터내셔널

미얀마 결핵검진 모바일클리닉  
2020 몽골 신장내과 온라인 세미나

7

라파엘  
나눔

제3차 코로나19 및 수해극복을 위한 의료물품 등 지원  
한성구 교수의 '제멋대로 여행기' - 약묘

## 라파엘 톡 Talk

허석훈 루카 영성위원장 | 가톨릭대학교 성신교정 철학과 교수

### 어색한 여름을 벗어나며

길었던 장마, 그 사이사이를 비집던 더위, 그리고 이어진 태풍, 이 모든 것들을 뒤엎어 버린 코로나 바이러스의 위세 앞에 휴가와 더불어 자연을 부쩍 성장시키던 여름의 즐거움을 잊은 채, 그저 짜증과 불안으로 시간을 흘려보내다시피 보내고 나니 '여름을 지냈나?' 기억마저 흐릿한 느낌입니다.

이러한 어려움에도 사람들은 고생하는 의료진에 감사했고, 스스로 절제하는 가운데 서로를 배려하며 여름을 채웠습니다. 그러나 그 와중에 종교의 이름으로 거짓 뉴스를 퍼트리며 온 나라 방역에 짐이 되어버린 집단행동은 힘겨운 여름을 더 버겁게 만들었던 것 같습니다.

제게 주어진 이 소중한 여백에다 다른 종교를 비방하거나 저와 생각이 다른 사람들을 욕하려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믿음이 요란한 외침으로 이론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일상에서 반복된 수련으로 '자기를 버리는 힘'을 기르고, 그 힘으로 이웃을 위해 헌신하는 데에서 '사랑의 계명'을 실천할 수 있음을 꼭 전하고 싶을 뿐입니다.

의대생이었던 친구에게서 '의사가 가슴 엑스레이 사진을 보고서 이상한 점을 발견하기 위해서는 보통 정상인의 엑스레이 사진 2만 장 이상을 보고 또 보고 연습해야 한다.'라는 말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세상 어느 곳이든 헌신하시는 분들의 힘이 오랜 수련에서 길러짐을 생각할 때, 신앙인으로 세상의 빛이 되고, 사랑으로 헌신하기 위한 수련은, 곧 일상의 작은 희생들임을 마음에 담아 이 어려운 시간을 이겨갈 수 있겠는 것입니다.

# 숙대약대 개국동문

이미션 약사

## Q1.

안녕하세요 약사님!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A. 안녕하세요! 성북동 하월곡동 88-427번지에서 ‘건강한 약국’과 ‘건강한 상담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약사이자 사회복지사, 이미션입니다. 라파엘클리닉 약제팀에서 약사로 봉사활동을 하고 있어요.

## Q2.

라파엘에서 봉사활동을 하게 된 계기는 무엇인가요?

A. 라파엘과 인연을 맺게 된 것은 3~4년 전부터 입니다. 제가 숙명여대 약학대학 개국동문회에 속해 있는데, 저희 동문회가 라파엘클리닉에서 봉사활동을 하기로 시작하면서 저에게도 참여 여부를 묻는 연락이 왔어요. 저는 연락을 받자마자 하겠다고 했고요^^ 일단 집에서 가깝고, 일요일 하루 쯤은 시간을 낼 수 있어서 하겠다고 했어요. 외국인 노동자이니까 꼭 ‘도와야겠다’가 아니고 그냥 저는 ‘내 앞으로 오는 인연’이니까 한 거예요. 저한테 연락이 닿은 것도 제가 선택한 것이 아니잖아요. 주님이 제 앞으로 끌어다 주신 인연이고, 저는 주님의 도구로서 최선을 다 할 뿐입니다.

## Q3.

라파엘에서 봉사하는 것 이외에 다른 활동도 활발히 하고 있으시다고 들었어요.

A. 저는 개인 약국을 운영하고 있고, 약국은 미아리 텍사스촌에 있어요. 여기는 사람들이 알고 있는 것처럼 성매매 집결지, 집창촌입니다. 서울의 대표적인 집창촌이었던 양동과 종로3가 지역이 60년대 말 단속으로 폐쇄되고 성매매 종사자들이 교통이 편리했던 하월곡동 근처로 모여들면서 만들어졌어요. 사람들이 무섭지 않냐고 많이들 물어보는데, 저에게 이곳은 어린 시절의 추억을 생각나게 하는 아름다운 고향이에요. 96년도부터 이곳에서 약국을 하기 시작했으니 벌써 24년 이란 세월이 지났네요. 약국을 운영하면서 정말 많은 성매매 여성들을 만났지요. 보통 약국은 몸이 아파 약을 사러 오시잖아요. 여기 미아리 텍사스의 여성들은 몸뿐만 아니라 마음도 다 아파요. 그렇다고 기댈 곳도 없으니, 제가 그녀들의 편이 되어주기로 했어요. 약도 지어주고 이야기도 들어주고, 후원금을 모아서 지원도 하고 있어요.

## Q4.

약국을 운영하시면서 상담센터도 같이 하고 있으신데, 그 이유가 궁금합니다.

A. 저도 고향으로 다시 돌아왔을 때는 저 먹고 살기 바빴어요. 전남편의 보증을 대신 서 줬다가 빚을 지게 되었고 신용불량자 상태였거든요. 그렇게 신산한 삶을 몇 년 보냈고, 약을 사러 오는 손님들 중에 어린 친구들과 또 다른 참 많은 것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그때부터 그들을 돕기 위한 일들을 조금씩 하기 시작했어요. 성매매 찬반 논쟁을 떠나서, 이 일을 하고 있는 여성들도 삶의 존재 자체가 이유인, 존중 받아야 하는 귀한 생명체인데, 그들 스스로도 이런 힘든 일을 하다 보니, 자존감도 낮고 자기 비하를 끊임없이 해요. 마음이 아프니, 몸도 당연히 아픈 사람들이 많고요. 저는 그들의 마음 속 이야기를 어떻게 하면 잘 들어줄 수 있을지 고민했어요. 그래서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취득했고, 상담센터도 운영하게 된 것이죠. 약을 사러 오는 손님보다 상담을 받으러 오는 손님이 더 많을 때도 있습니다.

## Q5.

정말 다양한 일들을 하고 계시네요. 그런데 또 다른 활동도 하고 있으시다면서요?

A. 네. 지금 ‘바하밥집’이라고 노숙자들을 위한 무료급식소를 후원하고 있어요. 이번 추석에 특별한 명절 도시락을 드리려고 준비 중이고요. 도시락 준비를 위해서 ‘온라인 앵벌이’를 하기도 했어요. (웃음) 제가 사실은 직업이 하나 더 있어요. ‘편딩기획자’요. 예전에 포털사이트의 스토리펀딩 프로젝트를 통해 후원금을 모아 성매매 여성들을 도울 수 있었거든요. ‘앵벌이’라는 표현이 너무 직접적인 하지만, 후원하는 것을 비하하는 단어는 전혀 아니죠. 주변에, 그리고 좀 더 많은 사람들에게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는 사람들에 대해 알리고 도움을 청하는 것, 그 행위를 나타내는 표현입니다. 나중에 ‘앵벌이가 주는 즐거움’을 주제로 글도 하나 쓰려고 해요^^ 그리고 보육원도 후원하고 있고... 아! 그리고 우연히 알게된 미혼모 가정도 돕고 있어요. 이번 주가 후원하는 미혼모의 아이의 세 번째 생일인데요. 사실 그 아이는 엄마가 아파서 자기의 생일을 처음으로 챙기는 기쁜 날입니다. 주말에 아는 기자님을 통해 사진작가의 봉사를 섭외했고, 나들이 겸 사진 찍으러 가기로 했어요. 아이가 신나 하는 모습을 촬영하고 싶어서 인터넷으로 장난감 몇 개도 주문했답니다.

## Q6.

이렇게 많은 활동을 할 수 있는 비결이 있으신가요?

A. 그냥 어려서부터 정말 다양한 활동들을 해 왔기 때문에 지금도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약대생 시절에 학생운동도 하고, 청계 피복 노조원들에게 무료 투약 봉사도 하고, 농촌 봉사활동도 했었기 때문에, 지금 하고 있는 일들이 전혀 불편하지 않고 익숙해요. 그리고 타인의 감정에 이입하는 것이 좀 빨라요. 학생운동을 하면서 타인의 입장을 이해하는 것이 훈련이 되었어요. 선천적으로 타고 났을 수도 있고요. 그리고 저도 사람인지라, 남의 아픔을 그대로 다 안게 되면 분명 지쳐요. 그러나 저는 이 힘들을 매일의 목상으로 다스립니다. 항상 제 자리 옆에서는 목상집과 성경책이 있어요. 목상을 하게 되면 마음이 편해지죠. 그리고 노래도 부르고 놀러도 다녀요. 가끔은 저를 위한 선물도 하고요^^ 저의 오감을 깨우는 활동을 하다 보면 다시 머리가 반짝반짝 빛나게 되고, 계속 여러 가지 활동을 할 수 있는 지혜와 에너지를 얻을 수 있지요.

## Q7.

이제 이곳도 2-3년 후면 재개발이 진행된다고 들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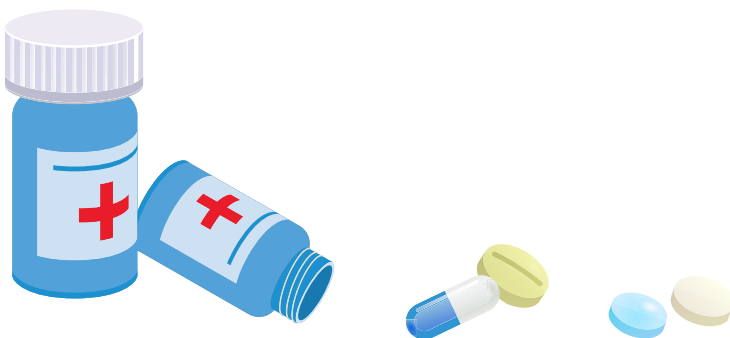
A. 네. 재개발이 확정되었으니, 수년쯤 뒤에는 저도 이 동네를 떠나게 되겠지요. 일단 다른 지역 약국에 가서 2년쯤은 돈을 벌다가, 시골로 내려갈 생각입니다. 지금은 8평 남짓한 작은 공간에서 약국을 운영하고 있지만, 지방에 내려가면 좀 더 큰 규모의 약국을 얻어 한쪽에는 아이들을 위한 공부방을 열 예정입니다. 배고프면 돈가스도 튀겨 주고, 비빔국수도 말아주고, 그리고 지금처럼 주민들을 위해 뜨개질 수업, 천연비누 강좌도 하고 있지 않을까요? 물론 그 전까지는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을 최선을 다해 할 거예요.

## Q8.

라파엘 봉사자로서, 라파엘이 어떻게 발전해 나가야 할까요?

A. 건강한 단체가 되기 위해서는 단체 구성원들의 마음가짐, 태도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도움을 주는 사람과 그 도움을 받는 상대방은 동등한 위치에서 있어야 하거든요. 절대 시혜를 베푼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내가 가지고 있고, 할 수 있는 것 중에 상대방에 도움이 되는 것들을 공유하는 것뿐이니깐요. 그렇게 생각해야만 건강한 봉사활동을 유지할 수 있어요. 라파엘에 오는 이주노동자들은 대다수가 위축된 상태로 클리닉을 찾아와요. 그럴 때 더 겸손한 자세로 그들을 대하는 배려가 있어야 해요. 라파엘클리닉에서 봉사자 교육을 할 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봉사자들에게 알려준다면, 라파엘은 계속 지금처럼 성장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지금도 라파엘은 최고랍니다^^

“내 앞으로 오는 인연에  
최선을 다 할 뿐”



## 인도인 S씨 수술지원

코로나19가 정점을 치닫던 지난 5월 15일, 라파엘클리닉이 의뢰한 환자 s\*\*\*k\*\*씨의 수술이 건국대학교 신경외과 문창택 선생님의 집도하에 성공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3년 전 인도인 s\*\*\*k\*\*씨는 남편과 함께 정치적인 이유로 한국에 이주하여 난민신청을 했습니다. 부부는 난민 심사 결과를 기다리며 한국 생활에 적응하기 위해 필사적인 노력을 했지만 이번 코로나19의 여파로 직장을 잃었습니다.

설상가상 두어 달 전 s\*\*\*k\*\*씨의 건강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깨질듯한 머리의 통증이 지속되더니 결국 시력감퇴까지 진행되었습니다. 남편의 실직으로 국민건강보험은 자격이 상실된 데다가 난민 심사 결과는 멀었고 부부의 재산은 고작 150만 원이 전부였던 상황. 그녀는 약국에서 구입한 진통제로 버틸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러한 안타까운 사연이 라파엘클리닉으로 전해졌습니다. 현재 코로나19로 대면진료가 허용되지 않아서, 봉사의료진 고영초 교수님(건국대학교 신경외과)께 도움을 청하게 되었습니다. 고 교수님은 휴가 중임에도 불구하고 빠르고 적극적으로 환자가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주선해 주셨고, 덕분에 건국대학교병원에서 심층 진료를 받았습니다. 검사 결과, 병명은 ‘동맥류’. 빠른 시일 내에 수술을 하지 않으면 동맥파열로 인해 위험한 지경에 이를 수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서둘러 수술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2시간 30분의 수술이 무사히 끝나고 s\*\*\*k\*\*씨는 일상으로 돌아왔습니다.

약 2천만 원의 입원 수술비가 들 것으로 예상되었지만, 건국대학교병원 의료진과 의료공제회 도움 덕분에 총 금액 7백만 원으로 부담을 덜 수 있었습니다. 7백만 원 중 우리 라파엘클리닉은 수술비 2백만 원을 환자에게 지원하였으며, 나머지 금액은 부부의 사정을 잘 알고 있던 한국에 거주 중인 인도인들이 십시일반으로 도움을 주었습니다.

“도움을 주신 한국인 여러분들을 결코 잊지 못할 것입니다. 건강을 회복하고 일자리를 다시 얻으면 저도 여러분처럼 어려운 일을 겪는 분들을 돕겠습니다.”

수술 이후 건강을 회복한 s\*\*\*k\*\*씨가 라파엘클리닉에 보내온 진심 어린 감사인사입니다.

저희와 함께 물심양면으로 아낌없이 도움을 주신 고영초 선생님, 건국대학교병원 의료진분들, 입원에서 퇴원까지 동행하며 통역을 맡아 주신 ‘멜팅팟’ 봉사단체, 그리고 라파엘클리닉 후원자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전 세계에서 코로나19가 유행하고 있는 가운데, 우리 라파엘클리닉은 이주노동자분들을 위해 의료 안전망으로서의 역할에 최선을 다할 것이니 많은 응원 바랍니다.





## 국제로타리 3640지구 8개 클럽 (남서울로타리 외 7곳) 코로나19 방역 물품 후원

지난 8월 1일에 개최된 국제로타리 3640지구(총재 노행식) 8월 클럽지도부 월례회의에서 라파엘클리닉에 대한 글로벌 그랜트 프로젝트 #GG2012764 기증식이 진행되었습니다.

이번 글로벌 그랜트는 로타리재단에서 신속하고 긴급하게 지원되는 코로나19 방역관련 특별프로그램으로, 라파엘클리닉에 열화상카메라 장비, 방역용 개인보호물품, 치과진료용 핸드피스와 소독기 등 약 53,000,000원(US\$43,064)을 후원해 주셨습니다.

남서울로타리클럽이 호스트가 된 #GG2012764 프로젝트에는 서울남도, 서울한수, 서울강동, 서울강서, 서울영등포, 서울강남, 서울한길로타리클럽이 함께 지원한 매우 의미 있는 사업입니다.

이외에도 자매클럽 D-3521 타이페이노스 로타리클럽에서 US\$3,900 상당의 페이스실드 1,000매를 라파엘클리닉에 지원하였습니다.

대만 및 한국 내륙운송과 통관료 및 부가세 등을 후원하고 모든 사업의 진두지휘를 해 주신 서승민 3640지구 국제봉사위원장(남서울RC)과 모든 프로젝트를 수행하는데 있어 불편함이 없도록 세심한 배려를 아끼지 않은 노행식 총재님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라파엘클리닉은 국제적인 이해와 친선 그리고 사람간의 교류를 봉사의 기회로 가슴에 안고 지속적으로 라파엘클리닉의 후원처를 개발해 주신 서승민 3640지구 국제봉사위원장님께 감사패를 전달했습니다.



## 환자 지원 소식

월	진료 장소	지원 내용	지원 금액
7월	라파엘센터진료소	(중국/1950년/여) 내과 진료비	18,800원
		(중국/1979년/여) 내과 진료비	286,700원
	동두천분소	(나이지리아/1964년/남) 정형외과 진료비	246,570원
		(나이지리아/1981년/남) 정형외과 진료비	82,350원
	천안모이세분소	(방글라데시/1968년/남) 내과 진료비	126,320원
		(카메룬/1972년/남) 내과 진료비	25,250원
	소계		785,990원
8월	동두천분소	(나이지리아/1964년/남) 정형외과 진료비	34,590원
		(나이지리아/1981년/남) 정형외과 진료비	72,890원
		(나이지리아/1959년/남) 정형외과 진료비	383,260원
		(나이지리아/1971년/남) 내과 진료비	65,700원
	소계		556,440원
계			1,342,430원

## 미얀마 결핵검진 모바일클리닉

라파엘인터내셔널은 KT&G복지재단의 후원으로 미얀마에서 결핵검진 모바일 클리닉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의 유행 지속으로 환자를 돌봐야 하는 의료진의 건강이 더욱 중요해진 상황에서, 6~8월 간 5회에 걸쳐 네피도 보건인력을 대상으로 결핵검진을 실시했습니다. Dakkhina, Zabbuthiri, Oat-tara, Zayarthiri, Pobbathiri 타운십에서 총 477명을 검진했고 결핵환자 5명을 발견했습니다. 환자들에게 결핵약을 배부하였으며 환자들이 지속적인 관리를 받을 수 있도록 결핵센터에 등록했습니다.

결핵은 전염성 질환으로, 조기 검진과 지속적인 치료 및 관리로 완치할 수 있는 질병입니다. 최전선에서 전염병에 맞서 싸우고 있는 의료진의 건강을 위해 함께 해주신 KT&G복지재단에 감사드립니다.



## 2020 몽골 신장내과 온라인 세미나

라파엘인터내셔널은 국제로타리의 후원을 받아 지난 7/1(수)과 8/5(수)에 2020 몽골 신장내과 제1·2차 온라인 세미나(웨비나)를 개최했습니다. 오국환 교수(신장내과 지도교수)가 진행을 맡은 본 세미나에는 몽골 신장내과 20여 명의 라파엘 초청연수 연수자와 예비 연수자가 참석하였습니다. 우선 몽골 연수자들이 학습한 의료 술기를 현지에 적용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에 대해 발표하고 오국환 지도교수가 피드백을 한 후, 참석자 토론이 진행되었습니다.

몽골 신장내과 세미나는 2009년부터 매년 현지를 방문하여 진행해왔으나, 올해는 코로나19의 확산으로 한국과 몽골 간 이동이 어려워지면서 취소되었습니다. 그러나 몽골의 기존 및 올해 예비 연수자들이 온라인 교육을 요청하였고 오국환 교수가 현지 의료진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진행될 수 있었습니다.

참석한 몽골 의료진들은 온라인 방식이 장소 제약 없이 어디서나 참여할 수 있어 좋았고, 당장 환자 치료에 어려움이 있는 사례였는데, 지도교수의 즉각적인 피드백을 얻을 수 있어서 큰 도움이 되었다고 하였습니다.

몽골 신장내과 온라인 세미나는 9월부터 월 2회로 확대해 진행함으로써 더 다양한 주제에 대해 논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것입니다. 또한 참석자들의 수요 조사를 바탕으로 선정된 신장내과 주제에 대해, 한국 신장내과 교수님들이 특별강의 진행도 해주실 예정입니다.

이번 몽골 신장내과 온라인 세미나를 후원해주신 국제로타리와 신장내과 지도교수인 오국환 교수님의 열정에 감사드리며, 라파엘인터내셔널은 아시아 개발도상국 의료진의 역량 강화를 위해 앞으로도 노력하겠습니다.



## 제3차 코로나19 및 수해극복을 위한 의료물품 등 지원

재단법인 라파엘나눔은 지난 1일과 2일, 코로나19와 수해로 피해를 입은 주민들을 지원하고자 의료물품을 의정부교구(교구장 이기헌 주교)와 대전교구 천안모이세(담당 박찬인 신부)에 전달하였습니다.

9월 1일에 의정부교구청을 방문하여 이기헌 주교님, 김동희, 조병길 신부님으로부터 연천 지역 등의 수해 피해 상황을 전해 듣고 구급함 200개, 수건 2,500개 등 구호물품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날인 2일에는 대전교구 천안모이세를 방문하였습니다. 천안 지역에는 이주노동자들의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마스크 10,000개, 손소독제 2,000개 등 의료물품을 지원하였습니다.

물품 전달을 위해 의정부교구청과 천안모이세를 방문한 김전 라파엘나눔 이사장은 “코로나19 장기화에 수해까지 겹치는 바람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 천주교 의정부교구 방문



▲ 천주교 대전교구 천안모이세 방문

## 한성구 교수의 ‘제멋대로 여행기’

### -약묘

양자강 이남에서 가장 아름다운 도시가 어디냐고 물으면 대부분이 소주와 항주를 꼽는다. 항주는 서호도 있고 중국 최고 미인인 서시의 고향이기도 하다. 춘추전국시대에는 오나라의 도읍이었고 그 이후 남송의 도읍이기도 했다. 항주에는 남송시대 최고의 명장인 악비(岳飛)의 묘가 있다. 악비는 중국에서 관우 다음으로 존경을 받는 충절의 유능한 장군이었는데 모함으로 억울한 죽음을 맞은 비운의 장군이라 후대의 중국 사람들이 악비를 숭앙하다가 급기야 그 묘도 악묘(岳廟)라고 불렀다.

송나라 휘종 때 송나라는 문약해서 스스로를 지킬 힘이 없었다. 금나라의 진격에 수도인 개봉이 함락되고 황제와 황후 등이 다 포로로 잡혀가는 굴욕을 겪는다. 이 때 휘종의 아홉 번째 아들이 남쪽으로 내려가 남송을 건국한다. 이때를 남북조 시대라고 한다. 금나라는 호시탐탐 남송을 없애려고 압박을 하는데 그 때 남송의 희망은 악비였다. 문약한 남송이지만 악비만은 달랐고 연승을 하면서 금나라 황제인 울출을 사로잡을 뻔하기도 했고 중원의 영토의 일부를 찾아오기도 했다.

그때 남송은 주화파와 주전파로 나뉜다. 강력한 적을 놔두고 굴욕적인 화친을 해서라도 보존을 해야 한다는 주장과 우리의 힘을 모아서 실지(失地)를 회복하고 오랑캐를 무찔러야 한다는 주장이 팽팽했었다. 마치 병자호란 때 남한산성에서 최명길의 항복하고 백성을 살려야 한다는 주장과 굴욕적인 항복은 절대로 안 된다는 김상헌의 주장과 비슷하다. 그러나 남송에게는 악비가 있었다. ‘신에게는 아직 배 12척이 있습니다.’ 처럼 악비에게는 악가군(岳家軍)이 있었다. 금나라 황제는 악비의 군대를 너무나도 두려워한 나머지 중원을 포기할 생각도 했다고 한다. 그 때 금나라의 재상은 황제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한다. ‘역사를 보면 조정에서 힘을 쓰는 대신이 있는 나라에서는 밖에서 싸우는 장수가 공을 세울 수가 없다.’ 그 이후 금나라는 남송의 실력자인 진회를 통해 어떻게든 악비를 제거하려고 했다.



금나라는 남송에게 평화의 조건으로 악비의 제거를 요구했다. 또 다른 한 편으로 금나라는 진희에게 막대한 뇌물을 주었다고 한다. 만약 임진왜란 때 소강상태에 들어갔을 때 일본이 평화의 조건으로 이순신을 제거할 것을 조건으로 걸었다면 조선을 어떻게 했을까? 일본 역사상 도쿠가와 이에야스가 오사카 성을 포위했을 때 평화의 조건으로 오사카성의 해자를 없앨 것을 요구했었다. 열세의 도요토미 측은 이 조건을 받아들였다. 얼마 후 해자가 없어진 오사카성에 도쿠가와 군은 밀물같이 밀려왔다. 당황한 도요토미 측은 얼마 전 평화약속을 깬 것에 항의를 했다고 한다. 이에 대한 답은 한마디였다고 한다. ‘적의 말을 믿는 바보.’

진희는 일선에 있던 악비를 조정으로 불러들이고 병권을 박탈했다. 곧이어 악비가 역모를 꾀한다는 누명을 씌웠다. 조사과정에서 악비는 옷옷을 찍어 등을 보여주었다고 한다. 거기에는 精忠報國(정충보국, 온 마음으로 충성하고 나라에 보답한다)이라고 새겨있었다고 한다. 어릴 때 악비의 어머니가 아들에게 항상 했었던 말이었다고 한다. 혹독한 고문을 하여도 아무런 증거가 나오지 않자, 한세충이 진희에게 따졌다고 한다. 아무런 증거도 없는데 훌륭한 장군을 해하려고 하느냐고 하자 진희가 했던 말이 걸작이다. “증거는 없지만..... 막수유(莫須有).....” ‘아니라고도 할 수 는 없지요.’라는 뜻이다. 이미 결과는 정해져 있었던 것이다.

결국 악비는 목숨을 잃었다. 진희는 20년 이상 남송의 재상으로 있었다. 악비가 죽었는데 금나라는 남송을 쳐들어오지 않았을까? 그 때 금나라는 더 북쪽의 강대한 몽골의 압박으로 남쪽으로 영토를 넓힐 상황이 되지 못했다. 그러니 악비의 말처럼 금에 대항하고 중원 실지회복이 꼭 허황된 일은 아니었던 것 같다.

악비의 사당을 ‘악왕묘’라고 부른다. 왕의 반열에 올려놓은 것이다. 악비의 상이 있는 본당에는 심소천일(내 마음을 하늘은 안다)라는 현판이 걸려 있고 악비상 위에는 환아하산(내가 산하를 찾아오겠다)라는 악비의 유언이 새겨져 있다.



▲ 악묘. 심소천일. 하늘은 내 마음을 안다.  
억울한 악비의 마음이다. 여행팀에 관대한 전문가가 있으면 이런 사진을 얻을 수 있다.  
-촬영 김대환



▲ 악비의 상 위에는 환아하산(還我河山)이라는 악비의 유언이 새겨 있다.  
‘내가 우리 산하를 찾아오겠다.’는 뜻이다.

-촬영 서윤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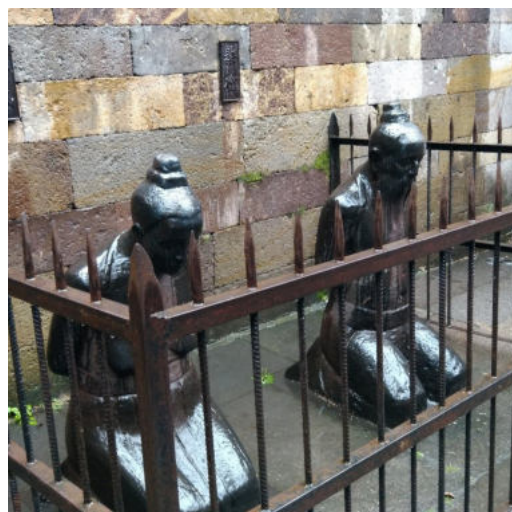




▲ 악비와 그 아들 악운의 묘. 부자가 같이 처형 당했다. -촬영 김대한

악비의 묘 앞에는 진회 부부와 그 일당의 상이 있다. 다들 포박을 당하고 악비에게 사죄하는 모습으로 있다. 이걸 도대체 언제 만들었을까? 전설에 의하면 남송 시대부터 있었다고 한다. 그 때는 돌로 만들었는데 하도 사람들이 돌을 던져서 남아나지를 앓았다고 한다. 지금의 상들은 무쇠로 되어있다.

악비가 억울하게 죽고 20년 후, 진회가 죽고, 악비는 복권이 되었고 충신을 간신 진회가 죽었다는 시각이 정설이 되었다. 그러나 악비가 지금처럼 숭상 받는 충절의 장군이 된 것은 명나라 때이다. 명나라는 몽골족이 세운 원나라를 멸망시키고 한족의 나라를 세운 나라이다. 한족의 민족주의의 나라인 셈이다. 게다가 성리학의 이념이 덧붙여지니 악비는 만고의 충신이고 진회는 간신의 표상이 된 것이다.



▲ 진회 부부의 상. 만고의 역적으로 악비의 묘 앞에 포박되고 무릎을 꿇고 있는 모습으로 만들어 놓았다. 이 상은 쇠창살로 갇혀 있다. 사실은 갇힌 것이 아니라 보호되고 있는 것이 맞다. 과거 돌로 만들었을 때 사람들이 돌을 던져 깨진 적이 있어서 무쇠로 바꾸었다는 말이 있기 때문이다.



▲ 진회 부부와 함께 장준, 만사설의 상 앞에는 '침 뱉지 마세요'라고 써 있다. 그냥가다가저글을 보고다시돌아와침 뱉는 중국인도 보인다. 악비에 대한 숭상과 진회 일당에 대한 증오가 보인다.





▲ 악묘의 아름다운 담 - 촬영 서윤신

진회에 대한 중국 사람들의 증오는 대단하다. 회(檣)라는 글자는 중국 사람들이 이름에 쓰기를 극구 꺼리는 글자가 되었고 항주의 길거리 음식 중에는 밀가루로 반죽으로 인형처럼 만들어서 기름에 튀기는 과자가 있다. 먹는 방법은 우선 머리처럼 생긴 부분을 먼저 떼어내서 먹는 것이란다. 진회를 끓는 기름 솥에 넣어 튀긴 후 목을 따는 셈이다.

진회의 죄는 화평을 주장해서가 아니다. 병자호란 때 항복문서를 썼던 최명길은 국제정세를 읽고 백성을 더 이상 고통 받지 않으려면 이 치욕을 견뎌야 한다고 생각했다. 그의 훌륭한 면모는 환향녀에 대한 대책에서 보인다. 청나라에 끌려 갔다가 고향에 돌아오게 된 여인들은 몸을 더럽혀졌다는 차가운 시선을 받고 가족에게도 버림을 받는 경우가 많았다. 그때 최명길이 이렇게 주장했다고 한다. ‘그 여인들이 몸이 더럽혀진 이유는 저 사람들의 잘못이 아니다. 서울 북쪽 홍제천에서 몸을 씻는다면 그 더러움을 씻은 것이다.’ 이런 재상이 필요하다.

진회 역시 현실 감각이 있었던 사람이고 금나라에서 포로 생활도 해 본 사람이다. 그런데 진회는 자기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무고한 훌륭한 사람들을 많이 죽였다. 권력을 잡은 후 공포정치를 심하게 했기 때문에 민심을 잃은 것이다. 오죽하면 진회의 정치적 동반자이었던 고종까지도 진회가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이제 신발 속에 칼을 숨기지 않아도 되겠다.’ 라고 했을까?

만고의 간신의 표상이었던 진회는 현대의 중국 정부에 의해 조금씩 평가가 달라지고 있다. 중국이 과거 한족의 나라에서 다민족국가..... 나아가서 제국이 되려는 생각이 움트고 있기 때문이라는 전문가들의 생각이 있는 것 같다. 한족의 입장에서 악비가 충신이고 진회는 간신, 매국노일 수 있지만 이제 중국은 만주족, 내몽골의 몽골, 티벳, 심지어 조선족까지 모두가 중국 사람이라는 개념이기도 하다. 이런 시각으로 보면 악비는 편협한 민족주의자이고 진회는 다민족 국가의 시각을 가진 유능한 정치가라는 뜻이다. 내가 무슨 생각을 하느냐에 따라 역사의 왜곡은 여기에도 있는가.....

## 7,8월 진료에 수고해주신 진료부와 진행부

코로나19 확산을 방지하고자 라파엘클리닉은 4월부터 비대면진료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함께해 주신 분들께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

진료부	진행부
<b>가정의학과</b> <b>내과</b> <b>당뇨클리닉</b> <b>심장클리닉</b> <b>재활의학과</b> <b>간호사</b> <b>임상병리사</b> <b>약사</b>	<b>총괄</b> <b>실행위원</b> <b>의과대학·간호대학</b> <b>고려대학교 의과대학 '카당'</b> <b>강성민 강현우 김선용 김선욱 김유강 김하운</b> <b>도정현 박소미 박주형 서동한 신예린 신원식</b> <b>신지원 오병찬 유동욱 윤태준 정현지 정희재</b> <b>최 윤 홍지인</b> <b>남서울대학교 간호학과 석민희</b> <b>서울대학교 의과대학·간호대학 '카사'</b> <b>김부영 김상돈 김수민 김수지 김윤아 노원준</b> <b>박대로 박수민 박유진 박재연 박지운 방의철</b> <b>오 석 윤태준 이규민 이윤재 전승연 정성현</b> <b>창 산 최지은 한승업 황윤식</b>
<b>김상혁 김수아 김태형 정부윤 이석영</b> <b>이호영 전한조 차란희</b> <b>전 안 박진우 장호선 주원찬</b> <b>민경완</b> <b>홍석근</b> <b>고나영 명유호 원준희 채현준 현철환</b> <b>권기숙 주선경</b> <b>임민규</b> <b>김경자 김다원 김양민 서지영 손윤아</b> <b>심명희 이숙희 함경화</b> <b>전 안 우선아 조현욱 황동숙</b> <b>숙대 약대 개국동문</b> <b>강동희 김성숙 노진희 서미영 송유경</b> <b>이미선 이옥현 차희수 최혜경</b>	<b>서일대학교 간호학과 조세희</b> <b>이화여자대학교 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b> <b>'하예모' 강현선 김소연 김주희 김한솔 나상운</b> <b>남기운 남지현 박수현 박주현 서은지 성지운</b> <b>송지현 안희원 윤해리 이가을 이동희 이상영</b> <b>이선우 이성민 이영주 이은경 이주연 이지운</b> <b>이혜준 장민영 장민지 장이준 장하나 정가영</b> <b>정세라 정지은 조혜은 최연희 최지우</b> <b>동두천 한양대학교 의과대학 장서연</b> <b>약학대학</b> <b>경희대학교 약학대학 '경약'</b> <b>송승현 신수지 오진솔 윤예진</b> <b>고려대학교 약학대학 '쿠팜'</b> <b>강민지 김진호 박소연 박수만 송지원 채희원</b> <b>서울대학교 약학대학 '라봉'</b> <b>구해민 이소윤 이정화 이지운 이새용 황윤재</b> <b>전 안 단국대학교 약학대학 이인수 이지연</b> <b>일반봉사자</b> <b>강석연 공연수 김서은 김진경 남동현 박정규</b> <b>박초예 어유나 에르덴바야르 오서희 원유석</b> <b>윤미강 이병순 장정현 자클린 전 온 전해수</b> <b>정정현 정정훈 정혜수 조윤영</b> <b>동두천 김강식 김원희 나형삼 박성희 박재열</b> <b>신정민 이인식 조성대 한사용 홍순식</b> <b>황성환</b> <b>전 안 염미현 신웅섭</b> <b>통역</b> <b>웬티옹아 발라미 이리나 양하</b> <b>망크바야르</b> <b>전 안 단국대학교 공물학과 문은진 정서우</b> <b>환 경 서울대병원 환경팀</b>

## 2020년 7월~2020년 8월의 라파엘 천사입니다.

### 라파엘 클리닉

1004 AHN SUNG K 강금례 강봉자 강애란 강윤미 강정희 강요경 강희경 강희복 고민관  
고재성 곽순진 권성연 권오기 권정희 권준수 금신자 기종간 김경길 김경연 김경자 김광두  
김광범 김귀자 김기정 김기환 김나영 김담희 김대욱 김동률 김두레 김 란 김명숙 김무겸  
김미숙 김미향 김민아 김민정 김민지 김봉록 김상정 김선덕 김성미 김수암 김수진 김연동  
김영국 김영미 김영숙 김영순 김영재 김영주 김영희 김왕울 김용운 김용호 김옥성 김원희  
김유경 김유숙 김윤선 김윤준 김은경 김인혜 김재희 김 전 김정자 김정희 김주영 김주현  
김중근 김지영 김진순 김창경 김파라 김학성 김해주 김현철 김해자 김호철 김홍빈 김희동  
김희정 김희중 니명훈 나상호 나승구 남상호 남숙이 노진희 마대중 마승희 문덕자 문미희  
문석란 문수정 문영주 문종렬 민경완 박건우 박경수 박기호 박대연 박명희 박문규 박미애  
박미영 박상규 박선영 박소연 박소정 박영배 박용현 박용화 박유희 박은선 박재홍 박정숙  
박주영 백경훈 백성호 백인하 백재순 변유란 변정익 서영선 서영주 서유진 설영기 성낙영  
손대원 손말희 손정희 손해정 손혜경 송순자 송여주 송은숙 송재성 송지영 송진욱 신동욱  
신동학 신미희 신영실 신인철 신창진 신태식 심영수 안미혜 안치석 양영실 양윤희 양재혁  
엄영근 엄익부 엠마슈미트 엠유섭 오명주 오범조 오세란 오세열 오세준 오정성 오정택  
오준영 오지영 오지원 오지현 오혜숙 왕혜숙 원영선 원종태 위봉애 유경돈 유경춘 유병란  
유승주 유재호 윤문자 윤미순 윤병우 윤병철 윤의영 윤장수 윤정목 윤혜리 이공필 이기연  
이대우 이명원 이민경 이민아 이민희 이부영 이상백 이선민 이선주 이소영 이수정 이숙희  
이영 이영재 이영주 이영희 이예성 이요래 이용학 이용희 이원평 이윤희 이은상 이은숙  
이은옥 이인재 이재광 이재용 이재희 이정완 이주식 이지원 이진석 이치우 이태림 이현석

이현주 이홍성 익 명 임태환 장기현 장수홍 장승아 장윤석 장인진 장정인 장현아 전병준  
전상우 전석구 전윤희 전정희 정석모 정선우 정순은 정순희 정영숙 정옥희 정재식 정정래  
정정희 정태운 정해남 정현규 정혜경 정희경 조광희 조문준 조미경 조상현 조수현 조아현  
조이현 조혜경 조혜숙 주선경 주효미 진순영 진양옥 최금순 최선경 최선자 최영희 최 용  
최윤라 최인호 최자영 최정연 최정목 최 황 추연명 추조자 한경아 한민규 한연주 한정희  
한지선 함덕영 함 숙 허성란 홍강의 홍경란 홍명숙 홍미심 홍석란 홍진경 홍혜련  
황석근 황순애 황영순 황윤주 황자영 황현숙

#### 단체후원

(주)천지산업 (주)피제이전자 OCI주식회사 담우물산 부페아리스  
한국교과기원 주식회사 한영회계법인

#### 단체약품후원

(사)인간의대지 (재)롯데복지재단 (주)유한양행 노보노디스크 제약(주)  
바이오스마트약품(주) 어린이의약품지원본부

#### 단체물품후원

국제로타리3640지구\_남서울로타리클럽 (재)유진벨

#### 지정후원

(재)바보의나눔 (재)유한재단 (주)하나은행 GS(사회복지공동모금회)  
김남호복지재단 대한적십자사 혈액관리본부 서울대학교 가톨릭경제인회 한국수출입은행

### 라파엘 인터 내셔널

강남구 강미령 강민진 강승우 강옥선 강윤아 강윤주 강정남 강지원 고평택 고평순  
고소영 고영초 고지연 곽인진 권도선 권수지 권용우 권임희 권혜철 김경덕 김경숙 김경택  
김공경 김규복 김길원 김길자 김돈규 김명기 김명희 김문희 김미규 김미애 김민정  
김병규 김봉애 김상호 김선미 김선주 김성봉 김성용 김성우 김성정 김세경 김소연 김수연  
김수현 김수화 김순녀 김순님 김순심 김순옥 김연정 김영석 김영순 김영솔 김영재 김용준  
김우현 김용한 김유련 김유정 김은주 김민순 김재석 김재우 김 전 김경문 김정미 김정아  
김정애 김정원 김정준 김정환 김정희 김중철 김중현 김준진 김지양 김지현 김지희 김진자  
김진철 김춘석 김철선 김현기 김현숙 김효순 김홍년 김희숙 남기미 남정우 노무중 노정우  
노준하 노태솔 노희양 노희철 라소영 류영선 명현식 문복순 민도연 민찬근 박건태 박광미  
박금보 박기연 박대열 박대연 박명숙 박미선 박미숙 박복순 박성희 박소연 박영민 박영자  
박영하 박영화 박영희 박옥희 박창호 박정자 박정희 박준오 박해인 박현숙 박훈영 방기태  
방승용 방호준 배성희 배수현 배승모 배운철 배혜경 변승혜 서동익 서승민 서은옥 서정훈  
설진선 설진우 손승이 손환철 송연희 송준석 송지원 송현숙 신건호 신노미 신승원 신운건  
신 철 심재임 심혜정 안규리 안규백 안 군 안봉순 안성용 안성훈 안소은 안재기 안재형  
안종욱 안종원 안종진 양승희 양원보 엄주영 여상민 오광숙 오문성 오상호 오영진 오종렬  
오혁진 오혜경 우연호 원용규 유기임 유동연 유석현 유인화 유재홍 유두희 윤병재 윤상경  
윤영옥 윤이경 윤정호 윤찬술 이경란 이경진 이규연 이대희 이도행 이명준 이문교 이미애

이민정 이병건 이상기 이상란 이성민 이수민 이승연 이연희 이영순 이영식 이영일 이옥경  
이원제 이은숙 이은정 이은주 이은호 이인숙 이일숙 이재룡 이재명 이재섭 이재인 이재현  
이재호 이정미 이정옥 이정우 이정은 이정인 이정희 이지는 이지훈 이진경 이진서 이태수  
이하정 이현심 이현종 임미정 임보현 임부열 임세영 임승옥 임의정 임재현 임정근 임채균  
임천규 장보일 전가는 전란혜 전민영 전세은 전수정 전 온 전준수 전화자 정구숙 정규탁  
정도현 정명관 정미경 정봉태 정산현 정성진 정유빈 정의석 정인규 정정환 정재은 정지태  
정진택 정진환 정혜택 정혜경 조경재 조남준 조대상 조정숙 조한범 조현에 주덕래 지혜선  
차창일 차재현 채승병 천지영 최건주 최공선 최두성 최복현 최순옥 최순철 최영아 최은옥  
최인범 최재경 최진이 최혜수 하정은 하희옥 한명은 한승환 한재일 함봉자 허석훈 허연호  
홍경애 홍영태 홍윤희 홍혜진 황귀진 황민주 황보현 황주연 황지영 황지희

#### 단체후원

(주)아톰도어파크 (주)아이비에스인더스트리 (주)유라통상 광명산업(주)  
사랑의후원금 씨에스우드(주) 의료법인 세경의료재단 케넥스사운드

#### 지정후원

(재)라파엘나눔 (재)청년재단 공동모금회 포스코 국제로타리  
케이티앤지복지재단(KT&G) 한국국제협력단(KOICA) 환경환



라파엘  
나눔

강건욱	강경임	강경화	강기석	강남순	강민서	강민수	강민정	강병도	강부성	윤성숙	윤성자	윤소영	윤영주	윤용헌	윤은옥	윤의진	윤이경	윤인숙	윤인자						
강애란	강영배	강요한	강은강	강은주	강인숙	강한나	강화자	강효정	강 훈	윤재순	윤재희	윤종식	윤태로	윤현배	윤혜진	윤희옥	윤희원	은진영	이건엽						
경희호	고경민	고명찬	고민수	고소현	고숙자	고원준	고준용	고지은	고 훈	이경민	이경숙	이경옥	이경주	이경훈	이경희	이계선	이고은	이광호	이규상						
고희순	공문선	공성혜	공인숙	곽영자	곽용진	곽재복	곽주연	곽진영	구서희	이규희	이기남	이기원	이기혁	이남우	이달봉	이달원	이도경	이동건	이동한						
권병준	권선진	권승택	권승호	권영희	권오숙	권재훈	권준범	권준이	권지형	이 란	이명숙	이명옥	이미라	이미애	이미자	이미화	이미희	이민경	이민규						
권형주	기현지	김가연	김건우	김경미	김경민	김경삼	김경숙	김경은	김경인	이민옥	이민우	이민재	이병돈	이병옥	이병호	이복순	이상남	이상미	이상민						
김경자	김경화	김광무	김귀숙	김규림	김규빈	김기남	김기문	김기풍	김기환	이상아	이상은	이석래	이선재	이선희	이성배	이성숙	이성이	이소영	이수련						
김나나	김나은	김낙현	김남미	김남웅	김남호	김다민	김대순	김대용	김대진	이수미	이수민	이수아	이수은	이수자	이순주	이승국	이승철	이승현	이승화						
김덕호	김덕희	김도원	김동기	김동순	김동연	김동엽	김동중	김동현	김면수	이아름	이연숙	이연옥	이연출	이영순	이영식	이영애	이영은	이영인	이영일						
김명숙	김명순	김명신	김명옥	김명웅	김명화	김미경	김미숙	김미정	김민순	이영희	이옥준	이용미	이용석	이원표	이유미	이유진	이윤의	이윤지	이윤진						
김민우	김민정	김민주	김민채	김범석	김범진	김보경	김봉길	김상범	김상수	이윤희	이은경	이은빈	이은재	이은지	이은진	이은하	이은희	이의석	이인자						
김상운	김상준	김상철	김상희	김서현	김선미	김선영	김선희	김성민	김성현	이재선	이재원	이재진	이재희	이정민	이정아	이정옥	이정은	이정철	이정표						
김성환	김세웅	김세중	김세진	김소정	김소형	김수미	김수아	김수연	김수정	이정현	이정환	이제현	이종근	이종림	이종만	이종민	이종철	이종현	이종화						
김수주	김수지	김순녀	김순희	김승철	김시현	김양현	김연수	김영기	김영남	이주영	이주형	이준한	이준행	이지민	이지섭	이지연	이지윤	이지혜	이진태						
김영래	김영수	김영아	김영재	김영훈	김영희	김예준	김옥수	김완수	김요한	이 찬	이찬휘	이찬희	이창우	이창학	이철재	이충식	이태경	이태규	이태식						
김용건	김용경	김용철	김우주	김유영	김유진	김유환	김윤동	김윤미	김윤상	이하정	이 한	이한규	이한신	이향숙	이향희	이현국	이현숙	이현심	이현재						
김윤서	김윤아	김윤정	김윤주	김윤태	김윤희	김은경	김은숙	김은순	김은아	이형란	이형진	이혜경	이혜옥	이혜진	이호열	이호영	이호준	이화자	이효정						
김은옥	김은정	김은희	김을수	김이숙	김이형	김자경	김자은	김장성	김재하	이희석	임경옥	임동우	임봉선	임송연	임안식	임연희	임원명	임은교	임인숙						
김재현	김 전	김정곤	김정림	김정미	김정순	김정연	김정은	김정일	김정자	임재우	임정선	임정옥	임준경	임준호	임지영	임진웅	임진화	임춘수	임한규						
김정제	김정현	김정호	김종엽	김종원	김종진	김종필	김종호	김종훈	김주영	임혜원	장경복	장경진	장문수	장비호	장세선	장수진	장순복	장영수	장영철						
김주희	김 준	김준민	김준호	김지수	김지영	김지하	김지현	김지호	김지희	장옥주	장윤재	장재옥	장정민	장정혜	장현민	장혜숙	장희숙	전경선	전동원						
김진구	김진수	김진숙	김진순	김진영	김진호	김진희	김재영	김주양	김태열	전미경	전병선	전병암	전승호	전양미	전은주	전혜정	전희중	정규현	정 남						
김태욱	김태원	김태진	김태형	김태희	김필성	김하석	김학준	김한수	김현옥	정다빈	정달근	정민주	정상식	정상화	정선민	정소영	정수영	정순균	정승민						
김현정	김현주	김현준	김현지	김현화	김형구	김형국	김형수	김형하	김혜경	정승이	정아현	정연순	정연호	정영근	정영빈	정영자	정영철	정영현	정영희						
김혜리	김혜선	김혜숙	김혜연	김호정	김홍자	김화정	김효준	나기영	나동규	정왕진	정우경	정우영	정원제	정은지	정재경	정재상	정정희	정제설	정종련						
나수영	나유미	나중옥	남계영	남궁중	남명동	남상범	남승희	남영우	남윤자	정종철	정종현	정준기	정준호	정지원	정지은	정진복	정혜경	정혜영	정희창						
남인옥	노경태	노민수	노영자	노유진	노정숙	노주환	노진영	노현주	도시현	조덕관	조미진	조민우	조범철	조부귀	조서현	조 석	조 선	조성범	조성연						
도홍숙	동소현	라성은	류국영	류수영	류은주	류현주	맹승현	모희정	목성빈	조성채	조성희	조수영	조순례	조승희	조승희	조연수	조영숙	조영순	조영재						
문경원	문귀옥	문상원	문선진	문순자	문영미	문정숙	문지환	문현일	민경울	조옥순	조윤서	조윤성	조은지	조재영	조재호	조주연	조준철	조춘식	조춘제						
민진호	박경봉	박경빈	박경심	박경자	박경희	박근배	박만섭	박명규	박명순	조한희	종민정	주권옥	주성원	주세운	주재원	지완일	지정훈	진영옥	진영진						
박미경	박민성	박민지	박민혜	박상섭	박상진	박상철	박서영	박선옥	박선우	진혜영	진호준	차상민	차서우	차영순	채동완	채영규	채윤서	채창규	천정은						
박선은	박성준	박세근	박수열	박수중	박수준	박숙녀	박순연	박순영	박순자	최내리	최대환	최동일	최명윤	최미경	최미정	최민웅	최범규	최병선	최서연						
박순희	박시형	박신안	박영기	박영수	박영식	박영준	박영환	박영희	박옥희	최선애	최수안	최수연	최숙자	최아인	최영애	최영자	최영화	최영희	최원남						
박외숙	박용식	박우곤	박우준	박용양	박원범	박윤주	박은경	박은희	박장환	최원의	최원일	최원호	최윤영	최윤옥	최윤진	최은영	최은주	최은희	최의혜						
박점례	박정미	박정민	박정안	박정예	박정우	박정의	박정임	박정희	박종식	최 인	최인희	최재원	최재현	최정규	최정은	최정훈	최준석	최지영	최지호						
박종택	박종환	박종훈	박 준	박준형	박중구	박지영	박찬익	박창배	박채린	최지훈	최창환	최지영	최현숙	최현웅	최형인	최희자	추성욱	추호정	편인숙						
박태섭	박해경	박해주	박행자	박현빈	박현숙	박혜경	박효주	반효정	방경숙	하승남	하태훈	하희자	한경옥	한경희	한만우	한명식	한민정	한사용	한상규						
방서인	방영미	방영식	방유진	방준혁	방혜란	배상미	배정현	배혜경	백문영	한상기	한상옥	한세현	한승석	한승우	한영숙	한영준	한유경	한은경	한중수						
백미숙	백미영	백상렬	백성현	백숙현	백심성	백은영	백은옥	백종옥	백진호	한현옥	함경화	허광래	허남주	허석훈	허성오	허 옥	허 진	허 황	현선희						
백해룡	백효정	변성연	변옥순	부종옥	사공정숙	서경산	서기원	서대현	서동진	현해근	홍경자	홍기순	홍미선	홍성민	홍성혜	홍성화	홍숙자	홍순경	홍승노						
서범석	서영경	서은영	서자경	서재일	서전영	서진옥	서진웅	서진환	서창호	홍승한	홍승훈	홍영의	홍옥표	홍옥희	홍윤태	홍장희	홍재모	홍지만	홍지연						
서혜명	서호경	선효숙	설수경	성경숙	성기택	성기훈	성석환	성숙환	성제경	홍창기	황경하	황등영	황명하	황보영	황성숙	황순정	황승용	황신아	황연숙						
성철제	성희진	소영섭	손금임	손병두	손성세	손슬기	손은정	손일락	손정수	황인규	황재숙	황지혜	황태숙	황한민	황희경	마 셸	슈 미 트	엠 마 슈 미 트							
손지환	손 희	송경희	송민겸	송민중	송상우	송석길	송영옥	송영주	송정섭	KIMMINHAMINAPIAO ZHENJI ZACHARY M HAHN															
송행숙	송현범	신덕순	신동미	신동원	신명원	신선희	신소라	신윤섭	신은영	단체후원															
신재연	신정경	신정옥	신정화	신주아	신지영	신진숙	신창규	신태임	신혜경	(주)두리디자인	(주)보명엔터	(주)삼명테크	(주)제이영에셋												
신혜미	신혜성	신혜숙	심대현	심정연	심희진	안경숙	안규리	안미규	안병애	(주)하트스캔	동아화성(주)	법무법인 덕수	법무법인 코러스	삼척사무소											
안성자	안성준	안세웅	안영복	안원모	안정원	안현배	안호선	안홍울	양병국	삼남석유(주)	선부한빛의원	인사이트메디컬(주)	천주교서울대교구	갈현동성당											
양세영	양승원	양 영	양영모	양영이	양영현	양태중	양희동	염기준	염민우	천주교 서울대교구	중앙동성당	천주교 서울대교구	창4동성당												
염소현	염익균	염지윤	여수진	여인열	염정인	오국환	오규석	오덕자	오명균	천주교 서울대교구	창5동성당	천주교 서울대교구	한남동성당												
오민석	오서희	오성자	오소영	오윤규	오정례	오정석	오혜원	오희숙	옥현숙	한국교직원공제회 한국교와기린 주식회사 한솔피아노															
우성윤	우수진	우영자	우재명	원재학	원종윤	위민이	위지범	유귀임	유달라																
유병숙	유병옥	유애숙	유영주	유유희	유은아	유은희	유재현	유정광	유지순																
유창우	유혜련	유효선	유희숙	윤강혁	윤광준	윤미선	윤미희	윤선희	윤성노																